

온라인 생필품 거래 2배 ↑... 로켓배송 330만건 역대최대

〈출고량〉

신종코로나가 바꾼 생활 패턴

온라인으로 쇼핑... 오프라인 非 선호 간편식·냉동 등 신선식품 거래 급증 영화관 등 여가시설 눈에 띄게 한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생활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집에서 장보기’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문량 폭주로 인해 이마트 측배송, 쿠팡의 새벽 배송 등이 늦어질 정도다. 집밥·혼술족이 증가하는 대신 영화관, 스키장은 한산했다.

◆온라인 주문 급증

2일 11번가에 따르면, 최근 6일(1월 27일~2월 1일)간 ‘신선식품’ 거래는 전달 동기 대비 46%, ‘생필품’은 104%, ‘가공식품’은 53% 증가했다.

반조리·가정식, 냉동·간편과일 등 간편한 신선식품 거래가 전달과 비교해 최대 1095%까지 늘어났다. 물티슈, 기저귀 등의 생필품부터 라면, 생수, 즉석밥 등 반복구매형 가공식품까지 ‘장보기’ 관련 품목들이 골고루 큰 폭으로 증가했다.

‘마스크’는 전달과 비교해 37169% 증가(373배), ‘손세정제’는 6679% 증가(68배)했다. 마스크, 손세정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제균티슈’부터 ‘보안경’까지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같은 기간 ‘제균티슈’는 343%, ‘보안경’은 661%까지 거래가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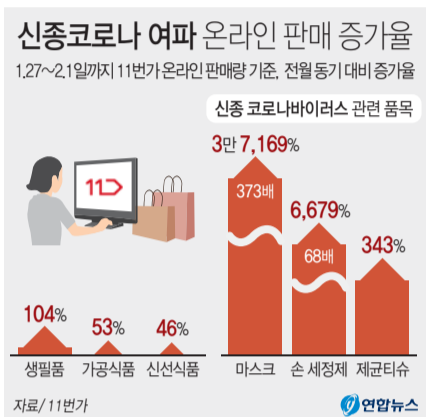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 반려동물 외출 시 보호를 위한 아이용 ‘유모차커버’와 ‘반려동물용 유모차’ 거래는 각각 31%, 56% 늘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 ‘비타민’ 등 각종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며 같은 기간



최근 6일(1월27일~2월1일)간 ‘신선식품’ 거래는 전달 동기 대비 46%, ‘생필품’은 104%, ‘가공식품’은 53% 증가했다. /11번가



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쇼핑물 식당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가 각각 73%, 45% 늘었다.

◆집밥·혼술 늘어

신종코로나에 대한 불안이 식품의 쇼핑 목록을 바꾸고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에서의 외식을 자제하고 가능한 조용하게 집밥을 먹고 ‘혼술’(집에서 술 마시는 트렌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G마켓의 집계가 이런 외식 기피 현상을 보여준다.

G마켓은 연휴 직후인 1월 28~29일 가정식 도시락 판매량이 지난해 설 연휴 직후(2019년 2월 7~8일)보다 무려 723% 증가했다. 이 기간 즉석밥 판매량은 21% 늘었고 볶음밥이나 컵밥류는 16%, 누룽지·죽은 28%, 즉석탕과 찌개류는 13% 판매량이 늘었다. 또 생수는

54%, 라면은 12% 더 잘 팔렸다.

집에서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나 인주와 소주잔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육포는 53%, 족발과 편육은 50% 판매가 늘었고 소주잔도 95%나 잘 팔렸다.

◆새벽배송 지연 속출

주문량 폭주로 쿠팡의 새벽 배송이 지연됐고, 마켓컬리의 냉장 상품 주문은 조기 마감됐다.

쿠팡은 지난 1일 ‘로켓프레시’의 새벽 배송이 2일까지 최대 2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쿠팡이 그동안 배송 인력을 지속해서 확대한 것을 고려하면 로켓프레시의 배송 지연은 이례적이다. 같은 날 마켓컬리는 아예 냉장 상품 주문을 조기 마감했다. 주문이 폭주하면서 냉장 상품 주문량이 센터 처리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사람들이 많은 물리는 장소는 피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문하는 것.

실제 지난달 28일 로켓배송 출고량

은 330만건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월 일일 출고량이 170만건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마스크 수요 급증...수량 제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도 벌어졌다.

지난달 21~27일까지 G마켓에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각각 50배, 70배가 올랐다. CU 편의점에서는 한 달 사이 마스크 매출이 10.4배, 손 세정제는 2.2배가 증가했다. 일부 약국, 편의점, H&B(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재고가 소진됐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이마트는 지난 달 31일 일부 점포에서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2~10개로 제한했다. 이마트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에서도 1인당 한 상자만 구매하도록 했다. 편의점 GS25는 가맹점의 마스크 발주 수량을 평소의 50% 수준으로 제한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현재 5~7일분의 판매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입지에 따라 편차가 있어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매장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판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영화관·스키장 ‘한산’

국내 확진 환자가 늘면서 주말 풍경도 달라졌다.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영화관처럼 주말마다 어김없이 붐비던 곳들이 눈에 띄게 한산했다.

영화관 곳곳에는 손 세정제가 놓여 있고, 행동 수칙도 공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로 확인된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J CGV 부천역점은 영업을 잠정 중단했다.

CGV 부천역점 측은 지난 1일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되어 임시휴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면서 제철을 맞은 스키장의 분위기가 빙점 이하로 얼어붙었다.

스키장 겨울방학 학생 단체예약이 100% 취소되는 등 국내 여행·레저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강원 용평리조트는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단체 예약 전체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됐다고 2일 밝혔다. 대학생과 기업 등 성인 단체 예약도 상당수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객실 예약도 설 이후 잇따라 취소되면서 2월 전체 예약의 20%가 사라졌다.

알펜시아리조트도 지난주 기준 2월 예약 230여건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리조트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 이런 예약 취소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키장은 한 철 장사인데 2월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 서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스키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와중에 악재가 겹쳤다”고 토로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이 확인됨에 따라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간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 /연합뉴스

신라면세점 임시휴업 결정

“전문방역 진행... 재개장 보건당국 협의”

지난 20·27일 12번째 확진자 방문 감염 확산 차단위해 추가 방역예정

신라면세점 서울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확인됨에 따라 2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신라면세점은 전달 국내 12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20일과 27일 서울 장충동 서울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통보받고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이 환자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관광 가이드 업무를 하다 지난달 19일 입국한 중국인 남성으로, 일본 내 확진 환자를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면세점 측은 “서울점은 신종코로나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전문 방역을 진행했으며, 혹시나 있을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방역 작업도 할 예정”이라며 “재개장 시점은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교육부 “자가격리 대상, 개인정보라 공개 못 해”

감염병 의심 교류 인원 파악에도 개인정보 등 이유로 공개여부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의 초기 대응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발원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로 알려졌지만 중국과의 교류가 특히 많은 대학사회 교류 현황 파악부터 시기를 놓치고 있어서다. 특히 감염증 초기 대학들의 후베이성 접근자를 파악해 놓고도 대학 사회 혼란이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대학이나 인원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교육부 등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운영하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당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과 대학 등 각급 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 우려되는 가운데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한 중국 지난날 비행기에서 물안경을 쓴 중국인 어린이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토록 했고, 무증상자라도 13일 이후 귀국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잡복기) 자가격리토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보건당국, 학교현장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인원이 어느 대학이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특히 교육부가 감염병이 의심되는 교류 인원을 파악해 놓고도, 대학이나 지역사회 혼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후베이 지역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감염병의 발원지가 중국이고 중국 유학생 등 중국과의 교류가 특히 많은 대학이 감염병의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교육부가 감염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인원, 동선 등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뒤늦게 교육부는 이후 29일 신종코로나 관련 대학 국제처장 등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각 대학에 중국 후베이성 지역을 방문했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0일에는 법무부로부터 중국 유학생의 출입국 현황을 전달받아 해당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용수 기자